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7회]

金午星

以上으로서 나는 實存哲學의 基本精神만은 粗述했다고 믿는다. 實存哲學은 生哲學이 生에 對한 哲學임과 같이 實存에 對한 哲學이 아니고 實存에서 由來하는 哲學이다. 實存哲學은 人間을 한 개의 對象으로서 解釋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存在를 自己의 切迫한 課題로서 了解하며 解明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實存哲學은 主體의 哲學이라 할 수 있다. 實存哲學은 不安, 苦惱, 鬪爭, 悲哀, 死에의 體驗 등의 現代 知性人의 體驗하고 있는 事實을 가장 主體의인 問題로서 解明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로부터 超脫할 것을 主眼으로 하고 있다. 實存哲學은 現代思想을 主體的으로 深化시키고 現代人을 主體의 探求, 自省에의 길로 引導한 데 없이 가장 큰 功績을 끼쳤다 할 것이다. 그러나 實存哲學이 말하는 그 超脫이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은 歷史的, 社會的 現實로부터의 個人的 超脫 즉 自覺的인 逃避에 不過한 것이다. 그것은 나의 見解로는 歷史性的 缺如에서 오는 듯싶다. 勿論 實存哲學도 歷史的인 性格을 전혀 갖지 안흔 것은 아니다. 世界的 存在로의 現存在 그것은 歷史的으로 制約된 人間性을 이룸이며, 더욱 하이데켈의 時間性的 構造는 歷史的인 構造를 갖인 듯도 하다. 그러나 歷史性은 單히 制約性을 이룸이 아니라 歷史的 必然은 同時에 歷史的인 것의 超越을 意味함이니, 實存哲學은 이 歷史的 必然에의 契機가 缺如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時間性和 歷史性과는 같은 것이 아니니, 時間性이 歷史性을 갖으려면 그것이 必然的 發展에의 契機를 獲得치 안하면 안되는 것이나, 하이데켈의 時間性은 그러한 必然에의 契機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일은마 超脫은 個個人的 自己逃避에 不過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實存哲學이 自己超脫에서 到達하는 “無”, 그것은 勿論 個個人的 逃

避所만은 아닐는지 물은다. 왜-그러냐 하면 不安의 超躰에서 나타나는 無는 한 개의 創造에의 世界라는 때문이다. 그러나 “無로부터의 創造” 이것은 結局 니히리즘에의 轉落이 아닐 수 없다. 世界 및 人間 一般에서 超脫한 “單獨者”로서의 實存이 一切를 否定한 뒤의 無에서 營爲라는 創造가 니히리즘 밖에 더 될 것이 없음으로써이다.